

‘허준’ 처럼 관심을 모을 방법은?

정 종 수 | 대전MBC 기획위원(前대전MBC 편성국장)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이 TV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시청률이라는 것이 있다. 전체 TV중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TV대수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두 개의 시청률 조사기관(회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TNS와 AGB닐슨 등 두 회사에서 대전에 있는 150~200가구에 피플미터라는 장치를 달아주고 시청하는 채널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청률은 각 방송사와 광고주 등에 유료로 제공돼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광고시간 결정과 효과 분석 등의 자료로 사용된다. 시청률은 더 세분돼 분당(分當) 시청률 같은 자료도 있어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장면이, 어느 순간에, 얼마나 관심을 끌었는지를 알 수도 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이 시청률이라는 괴물과 싸우느라고 방송사 직원들은 머리를 짜내는 한편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옥내·외 녹화, 편집, 취재, 기획회의 등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신문에서 독자수(유료 발행부수)와 비견되는 이 시청률에 각 방송사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광고유치(회사 수입)와 방송사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다.

몇 년 전 MBC-TV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방송할 때 그 시간에는 거리의 택시 운행이 뜸했고, 수도물 사용량도 줄었으며(화장실 이용도 줄었으므로) 전화 통화량이나 술집 매출도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 그 시간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들이 넘쳐나 줄을 섰다고 한다. 당시 그 드라마의 시청률은 70%를 넘나들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 공을 들어 제작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뒷얘기도 남겼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알아주면 신명이 나고 일의 성과도 높아진다. 또 하는 일의 내용이 잘 알려지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나 협조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바르게 알려져야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이고 일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

개인이든 단체든 하는 일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이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이나 지지자가 많을수록 좋은 정치세력, 일반인의 참여가 성패를 가름하는 NGO나 팬들의 갈채를 먹고 사는 연예인 등에게 홍보, PR, 선전, 광고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이사로 참여한지 여러 해가 되었다. 충발연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크게 성장을 했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종종 집에서 받아보는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연구원들의 맘이 배어있고, 조직 구성원들의 애정이 짙게 묻어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배포하는 일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자신 대전MBC 사보를 12년간 매월 발행한 경험이 있어서 그 작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해 본다. IT강국 한국답게 e메일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나는 매일 몇 개의 메일을 받아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내는 SERI 매거진을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을 살펴보고, 디트뉴스가 제공하는 메일을 읽고 메이저 신문·방송에서 취급하지 않는 우리고장의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으며,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배달되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만약 충청연의 연구물과 관련 동정이나 소식들이 대전·충남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메일로 전송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우리고장 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지자체 의원, 도·시·군청의 공무원, 주요 기업의 경영자, 주요 언론사의 기자와 제작 담당자, 기타 주요 인사들에게 우선 주 1회 이상 메일을 보낸다면 적어도 몇 천 명의 인사들이 충청연의 활동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관심과 이해와 협조를 보낼 것이다. 최소한 충청연이 어떤 곳이라는 정도는 기억할 것이 아닌가?

요즘 흔히 말하는 One Source Multi Use(OSMU, 하나의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쓰는 것, 예를 들면 한 작품을 TV와 극장, 비디오로 사용하는 것 등) 개념과도 부합되는 일이다.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 말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 잘하고 있다. 금상첨화, 주마가편하는 마음으로 쓴다.